



쿨하게... 음악 바캉스 떠나볼까

롯데콘서트홀 OST 특별 페스티벌 영화·게임·애니메이션 음악 선사 오픈하우스 데이도 운영 '눈길'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여름이 찾아왔다.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울 때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공연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콘서트홀은 오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영화음악(OST)을 주제로 한여름 특별 페스티벌 LOF(LOTTE OST FESTIVAL)를 진행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시네마 콘서트, 애니메이션 음악, 필름 콘서트, 게임 콘서트 등 총 27편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공연장에서 영화음악과 함께 스크린 너머의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다.

19일 '반지의 제왕·왕좌의 게임 영화 음악 라이브'와 23일 '한스 짐머 VS 존 윌리엄스'는 각각 서사적 판타지와 두 거장의 명곡을 무대 위에 되살리는 공연이다. 세계 수백만 관객이 열광한 작품에 수록된 영화음악을 공연장으로 끌어

와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21·22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의 대가인 히사이시 조가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무대를 선보인다. 최근 클래식 음악 지휘자로도 음악적 행보를 넓혀가는 히사이시 조의 8년 만의 내한공연이다. 그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하프 협주곡' 등을 한국에서 초연할 예정이다.

8월 3일과 10일 총 4회 공연되는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는 애니메이션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의 전 시즌 삽입곡을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뮤지컬 배우 채세린, 최지우, 최현진, 이두진의 노래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8월 4일에는 오픈 하우스 데이를 운영해 관객들이 자유롭게 콘서트홀을 드나들면서 공연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총 30분간 진행되는 세 차례의 공연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오르간 연주

를 감상할 수 있고, 두 차례 진행되는 스테이지 투어를 통해 공연장 안팎을 둘러볼 수 있다. 오픈 하우스에 참가하는 관객에게는 공연장에서의 색다른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주앙 모델 와인 체험 이벤트를 통해 화이트 와인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LOF 공연에는 2층 L, R 구역에 'LOF석'을 1만5000원에 한정 판매해 관객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연별 예매 및 문의는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www.lotteconcerthall.com) 또는 전화(1544-7744)로 하면 된다.

노성수 기자/사진=롯데콘서트홀



◀ 2018년 열린 '한스 짐머 vs 존 윌리엄스' 국내 공연 모습.
▼ '송민규 & 박수예 ON FIRE' 공연 포스터.

찾는다

우리식물 기록을...

국립수목원, 30일까지 사진공모전

국립수목원은 오는 30일까지 '우리 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 이제 당신의 사진으로 이어갑시다'를 주제로 대국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간 예정인 일제강점기 식물채집 사진 자료집과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공모전 참가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kna.forest.go.kr)에 게시된 7개 장소(울릉도·포천·제주·지리산·단양·청계산·서울)에 해당하는 사진을 참고해 동일 장소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장한 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지난 세기 기록과 오늘의 이야기가 만나 우리가 지켜온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자연유산을...

국가유산청, 10월 10일까지 공모

국가유산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 지정에는 이르지 못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을 뜻한다.

공모 대상은 마을의 전설·설화·풍속·생활양식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동물, 식물 등의 자연유산이다. 참여는 10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community-nh.solvek.c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함께 마을 자연유산에 대한 설명(전설, 기억, 이름 등)과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노성수 기자



핫하게... 불꽃 협연에 빠져볼까

'송민규 & 박수예 ON FIRE' 세계 콩쿠르서 우승 '금의환향' 예술의전당서 17일 한무대에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활약하는 두 젊은 연주자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다.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예술의전당 x 서울시립교향악단: 송민규 & 박수예 ON FIRE'는 국내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과 교향악단인 양 기관이 젊은 아티스트와 함께 한여름 밤의 뜨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자리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가 서울시향

협연자로 나선다. 올해 장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박수예는 현재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연주자 중 한 명이다. 17세 때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 음반을 세계 최연소로 발매하는 등 총 다섯 장의 국제 음반을 발매했다.

지휘는 지난해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송민규가 맡는다. 지난 6월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선임된 이후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무대다.

두 사람이 빛어내는 무대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으로 막이 오른다. 이 곡은 어둠에서 솟구치는 서주와 극적인 주제 전개, 후반부의 팡파르까지

독일 오페라 특유의 구조미와 색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지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서정적인 1악장, 감미로운 2악장, 기교와 생동감이 돋보이는 3악장이 이어져 바이올린 협주곡 중 가장 매력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마지막 곡은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스코틀랜드'가 예정돼 있다. 안개 낀 스코틀랜드 고성의 분위기에서 찬란한 종결로 이어지는 걸작으로 민속적 정취와 고전적 균형미가 전 악장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돼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티켓 예매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sac.or.kr) 또는 전화(1668-1352)로 하면 된다. 노성수 기자/사진=예술의전당

